

# 한국목록규칙 제5판과 제4판의 서지기술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in KCR5 and KCR4

김 정 현 (Jeong-Hyen Kim)\*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KCR5와 KCR4의 적용 사례 비교 |
| II. KCR5와 KCR4의 구조적 특성 비교   | V. 결 론                   |
| III. KCR5와 KCR4의 주요 기술사항 비교 |                          |

**요 약:** 이 연구는 KCR5와 KCR4의 서지기술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KCR4는 자원유형별로 ISBD, KCR5는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목차 구성에 있어 KCR5는 접근점과 관계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KCR4는 요소의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KCR5는 의미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주요 서지기술에 있어 KCR4의 자원유형, 자료특성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으며, 특히 KCR5는 전거데이터와 관련된 개체인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를 신설하였다. 넷째, 실제 KCR5의 서지기술 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개체의 속성 기록, 개체의 관계 기록, 개체의 접근점 작성에 있어 KCR4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주제어:** 한국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법, FR 개념모형, 자원기술과 접근, 영미목록규칙, 서지기술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s in KCR5 and KCR4,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ly, KCR4 is based on ISBD by media type, while KCR5 is based on FR concept model. In terms of table of contents, KCR5 added access points and bibliographic relationship sections. Second, while KCR4 defines both the semantic and syntactic aspects of elements, KCR5 defines only the semantic aspects. Third,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main bibliographic descriptions of KCR4, including media type, material specific area, material description area, and note area. In particular, KCR5 newly established entities related to authority data, such as work, expression, person, family and corporate body. Forth, as can be seen from the analysis of actual KCR5 bibliographic description cas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from KCR4 in recording entity properties, recording entity relationships, and creating entity access points.

**KEYWORDS:** KCR, ISBD, FRBR, RDA, AACR, Bibliographic Description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jhgim@jnu.ac.kr / ISNI 0000 0004 6322 8942)

• 논문접수: 2025년 8월 28일     • 최초심사: 2025년 9월 8일     • 게재확정: 2025년 9월 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3), 1-18,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3.202509.1>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 론

1961년의 파리원칙과 ISBD, AACR2 등에 기반한 한국목록규칙은 2003년 제4판(이하 KCR4)이 간행된 지 22년이 지났다. 이 가운데 특히 IFLA의 ISBD는 196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 목록전문가회의의 결과로 시작된 이후, 서지기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Chaplin & Anderson, 1970, 115-116). 그런데 최근 국제 목록규칙의 환경은 크게 바뀌었으며, 그 중심에 인터넷의 확산과 1998년 IFLA에서 제안한 FRBR이 있다. 이의 영향을 받아 파리 원칙에서 2009년 국제목록원칙규범으로, 2011년 자원유형별 ISBD에서 ISBD 통합판으로, 2010년 AACR2에서 RDA로 목록의 기반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도 2013년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드디어 2025년 6월 한국목록규칙 제5판(이하 KCR5)을 완성하였다.

그동안 KCR5가 제정되기까지 많은 세미나와 논의가 있었지만, KCR5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KCR5와 KCR4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익숙한 KCR4와 외형적으로나 내용면에서 크게 바뀐 KCR5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KCR5와 KCR4의 구조적 측면에서 규칙의 기반, 서지요소의 구성, 규칙의 목차 구성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KCR5와 KCR4의 기술사항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는 자원유형, 자료 특성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기타 세부 사항으로 구분하여 변경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셋째, KCR5와 KCR4에 의한 실제 자원의 서지기술을 통해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 II. KCR5와 KCR4의 구조적 특성 비교

### 1. 규칙의 구성 기반

IFLA의 ISBD와 FR 개념모형이 각각 KCR4와 KCR5에 있어 규칙의 전체적인 구성 기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ISBD는 기본적인 서지데이터 형식으로 세계서지제어의 증진을 위해 보편적이고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표준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처음부터 서지정보를 공유할 때 일관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SBD Review Group, 2011, vii). ISBD가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당시의 ISBD를 바탕으로 관련 목록규칙을 정비하였으며, KCR3과 KCR4도 ISBD를 수용하였다(韓國圖書館協會, 2003, xxvi). 이와 같이 ISBD는 국제서지기술의 표준으로 제시되었으며,

## 한국목록규칙 제5판과 제4판의 서지기술 비교 분석

각국의 목록규칙에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ISBD는 2011년 통합판이 나오기 전에는 1974년 단행본용 ISBD(M)을 시작으로 자원유형별로 제정되었다. 2003년 KCR4가 발간될 당시 자원유형별 ISBD의 현황과 KCR4와 관련된 부분을 대략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이경호, 김정현, 2024, 43-44).

ISBD(G): general 1977, 1992 → 제1장 기술총칙

ISBD(M): monographic publications 1974, 1978, 1988, 2002 → 제2장 단행본

ISBD(CM): cartographic materials 1977, 1987 → 제3장 지도자료

ISBD(A): antiquarian 1980, 1991 → 제4장 고서와 고문서

ISBD(PM): printed music 1980, 1991 → 제5장 악보

ISBD(NBM): non-book materials 1977, 1987 → 제6장 녹음자료, 제7장 화상자료, 영상자료  
제9장 입체자료, 제10장 마이크로자료

ISBD(ER): electronic resources 1997 → 제8장 전자자료

ISBD(CR): continuing resources 2002 → 제11장 연속간행물

이러한 자원유형별 ISBD가 통합판으로 대체된 가장 큰 특징은 ISBD가 FRBR를 반영하면서 제1영역의 본표제 다음에 기록하던 GMD(일반자료표시)를 제거하고, 제0영역에 내용형식과 매체 유형을 포함하는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사항’이라는 새로운 사항을 신설한 것이다(ISBD Review Group, 2011, xiii-xiv). 이는 AACR2의 후속판이라고 할 수 있는 RDA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KCR5의 구현형에 ISBD 통합판의 특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IFLA의 FRBR에서 정의한 개체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목록의 요소 즉, 서지사항들이며, 이러한 서지사항들을 크게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였다. 제1집단에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제2집단에는 개인과 단체, 제3집단에는 개념, 대상, 사건, 장소로 구성하였다 (IFLA, 1998, 12). 이 모형은 특히 이들 개체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같은 저작의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후 IFLA에서는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 FRAD를 발표했으며, 여기서 전거데이터는 도서관목록이나 서지데이터에 있어 접근점의 기초로 사용되는 특정 개인, 가계, 단체 또는 표제에 관한 정보의 집합체이다(IFLA, 2009, 1-2). 또한 IFLA에서는 주제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 FRSAD를 발표했으며, 이는 주제전거 레코드에 수록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구조화된 참조 틀을 제시한 것이다(IFLA, 2011, 38). FRAD와 FRSAD는 별도로 개발되었지만 FRAD는 FRBR의 제2집단과 저작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FRSAD는 주로 FRBR의 제3집단과 저작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FRBR, FRAD, FRSAD 3개의 개념모형을 FR 개념모형(FR Family)이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CR5는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즉, KCR5에서 서지기술

을 위한 데이터 요소는 FRBR에서 정의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라는 개체와 관련 속성 및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FRAD에서 정의한 개인, 가계, 단체라는 개체와 관련 속성 및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5, 1-3). 그런데 KCR5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제3집단 개체는 유보하였으며, KCR5의 저본으로 참고한 RDA 2017년 판에서도 ‘장소’를 제외하고 개념, 대상, 사건에 대한 것은 미완성이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7, 0-7).

이와 같이 KCR5는 FR 개념모형을 전반적인 규칙의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 개체의 구체적인 속성 기록이나 접근점, 관계 부분은 상당 부분 RDA를 참고하고 있다. 그런데 RDA도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현형에서 ISBD와 AACR2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KCR5의 접근점 구성은 RDA를 참고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AACR2에 있다(Kincy & Layne, 2014, 25-27). 특히 KCR5의 구현형 구성은 ISBD 통합판과 같이 자원유형을 통합함으로써 KCR4와 구성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ISBD 통합판에서와 같이 서지요소의 순서와 구분기호법은 사용하지 않지만, KCR5의 구현형 속성 기록이나 예시에서 여전히 ISBD의 기반이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서지요소의 구성

AACR2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목록규칙은 구분기호법으로 대표되는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의 규칙을 함께 다루어왔으며, KCR4도 ISBD에 따라 요소의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KCR5는 요소의 구문적 측면을 제외하고, 의미적 측면만 규정한다. 예를 들면, KCR4는 각 서지사항에 ISBD를 적용하여 형태사항에서 ‘쪽수 : 삽화 : 크기 + 딸림자료’와 같이 기록하지만, KCR5는 요소의 기록 순서, 데이터 입력을 위한 부호화 방식, 디스플레이를 위한 출력 형식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0.8). 이와 같이 서지요소의 의미적 측면만 규정한 후, 구문적 측면은 별도의 표준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기계가독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상호운용성을 위한 유연성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KCR4는 기술해야 할 서지요소를 제시하면서 요소의 상하 개념에 따른 계층관계, 요소의 필수성에 따른 핵심요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KCR5는 서지기술의 속성을 핵심요소와 임의요소, 요소와 하위요소로 각각 구분한다(0.6). KCR5에는 개체 속성 및 개체 간의 관계를 요소와 하위요소의 2계층으로 구분하고, 전체 230여개의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김정현, 2025, 277-278).

KCR5의 각 사항이 대부분 요소명이나 하위요소명으로 사용되지만, 일부 사항은 편의상 구분을 위한 사항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록매체사항이나 저작의 내용, 표현형의 내용 등은 이들 사항 아래에 정의된 구체적 사항을 요소명으로 한다.

### 3. 규칙의 목차 구성

#### 가. KCR4와 KCR5의 목차

KCR4의 목차는 〈표 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기술총칙 이후 자원의 유형별로 장을 구성하고 있다. 기술총칙을 비롯하여 각 유형별로 구분된 장에서 다시 ISBD에서 제시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등의 서지사항을 반복하여 세부 사항으로 나열하고 있다.

KCR5의 목차는 〈표 1〉과 같이 외형적으로 KCR4와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KCR5는 ISBD 통합판에서와 같이 구현형 아래에 서지요소별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KCR4의 전체 내용이 KCR5의 개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CR5의 목차를 보면 FR 개념모형의 개체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계, 단체 등으로 장을 구성하여 각 개체의 요소를 나열하고, 개체마다 탐색과 식별에 필요한 서지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체는 자원의 내용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즉, 자원의 내용과 관련된 저작과 표현형, 물리적 외형과 관련된 구현형과 개별자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아울러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5, viii).

〈표 1〉 KCR4와 KCR5의 목차 비교

KCR4	KCR5
<b>제0장 총칙</b>	<b>제0부 총설</b>
<b>제1장 기술총칙</b>	<b>제1부 서지기술</b>
제2장 단행본	<b>1.0 총칙</b>
제3장 지도자료	1.1 구현형
제4장 고서와 고문서	1.1.0 총칙
제5장 악보	1.1.1 표제
제6장 녹음자료	1.1.3 판사항
제7장 화상자료와 영상자료	1.1.5 발행사항
제8장 전자자료	1.1.7 종서사항
제9장 입체자료(실물)	1.1.9 간행번호
제10장 마이크로자료	1.1.11 구현형의 식별기호
제11장 연속간행물	1.1.12 입수 및 접근정보
제12장 점자자료	1.2 개별자료
	1.3 저작
	1.4 표현형
	1.5 개인
	1.6 가계
	1.7 단체
<b>제2부 접근점</b>	
2.0 총칙	
2.1 저작의 접근점	2.2 표현형의 접근점
2.3 개인의 접근점	2.4 가계의 접근점
2.5 단체의 접근점	
<b>제3부 관계</b>	
3.0 총칙	
3.1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	
3.2 자원과 연관된 개인, 가계, 단체	
3.3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3.4 개인, 가계, 단체 간의 관계	

#### 나. KCR5에서 신설한 내용

##### (1) 제1부 서지기술

〈표 1〉에서와 같이 KCR4는 서지데이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거데이터 규정 자체가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KCR5는 아래와 같은 전거데이터 관련 개체와 규정을 신설하였다.

- ① 저작(1.3) : 저작의 표제, 저작의 형식, 저작의 식별기호, 저작의 내용 등
- ② 표현형(1.4) : 내용유형, 표현형의 언어, 표현형의 식별기호, 표현형의 내용 등
- ③ 개인(1.5) : 개인명, 개인과 연관된 일자, 개인의 직위, 활동분야, 개인의 식별기호 등
- ④ 가계(1.6) : 가계명, 가계와 연관된 일자, 가계유형, 가계의 식별기호 등
- ⑤ 단체(1.7) : 단체명, 단체와 연관된 장소, 단체의 활동분야, 단체의 식별기호 등

한편 KCR5에서 서지데이터의 근간은 구현형을 기록함으로 비롯되며, 개체의 속성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록한다(1.0.3).

구현형 → 개별자료 → 저작 → 표현형 → 저작자(개인, 가계, 단체)

[서지데이터]

[전거데이터]

##### (2) 제2부 접근점

KCR4에는 접근점 규정이 없으며, KCR5가 신설한 부분이다. KCR5는 접근점을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으로, 제어형 접근점은 다시 전거형접근점과 이형접근점으로 구분한다.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의 우선명 또는 우선표제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이형접근점은 주로 이러한 각 개체의 이형명이나 이형표제를 기반으로 작성한다(2.0).

한편,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KCR4의 규정과 관계없이 대부분 필요한 접근점 즉, 부출표목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KCR4를 적용하여 서지기술을 하면서 접근점을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대부분 전거제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서지데이터만 작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KCR5가 전거제어를 위한 속성 기록의 근거를 신설한 만큼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 (3) 제3부 관계

KCR5의 제3부에서는 저작을 비롯한 각 개체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3.0). 이 부분도 KCR5가 신설한 내용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KCR4에서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KCR4는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별도의 항목이나 요소가 아니라, 주기사항에 비구조화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템색이나 식별에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KCR5는 서지적 관계의 속성을 모두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기록할 때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를 제외하고 관계표시어를 앞세워 기록한다. 특히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분석하여 관계표시어를 적용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KCR4와 달리 KCR5는 서지적 관계 속성을 대부분 구조화하여 기록한다는 점이다.

### III. KCR5와 KCR4의 주요 기술사항 비교

#### 1. 자원유형

ISBD나 AACR2에서 자원의 유형을 구분할 때 GMD와 SM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KCR4는 이를 각각 포괄적인 자료유형과 특정자료종별로 지칭하고 있다. 이 포괄적인 자료유형과 특정자료종별에 해당하는 내용을 KCR5는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내용유형으로 크게 재편하였다.

자원의 유형별 구분에 대해 AACR2와 마찬가지로 KCR4는 본표제 다음에 포괄적인 ‘자료유형’과 세부적인 형태사항의 ‘특정자료종별’에 기록한다. 그런데 자원유형을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물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유형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자료나 마이크로자료와 같은 물리적 측면의 자원과 이들 자원에 수록될 수도 있는 지도자료(제3장), 악보(제5장), 화상자료와 영화(제7장)와 같은 내용적 측면의 자원, 그리고 연속간행물(제11장)과 같은 간행 형태의 자원유형을 단순히 한 가지만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혼합된 전자지도, 마이크로피시에 수록된 악보, 디지털화된 그림 등의 기록에 어려움이 많았다.

반면에 KCR5는 자원유형을 다원적인 측면에서 개체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즉, 구현형의 매체유형(1.1.6.1)에서 자원 내용의 감상, 재생, 작동 등에 필요한 매개 장치의 유형을 제시하고, 수록매체유형(1.1.6.2)에서 매체유형과 결합한 저장매체의 형식이나 보관용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현형의 내용유형(1.4.1)에서는 내용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내용을 지각하는 인간의 감각을 반영하여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KCR4에 비해 KCR5는 세부적인 형태사항의 속성 즉, 수록매체사항에 큰 변화가 있어 데이터기록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 2. 자료특성사항

KCR4는 자료특성사항에 지도자료, 악보, 연속간행물, 마이크로자료뿐만 아니라 전자자료와 입체자료 등의 자료특성을 기록하고 있다(1.3).

반면에 KCR5는 자료특성사항이라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KCR4에서 기록하던 자료 특성사항을 개체별로 요소를 설정하여 기록한다. 즉, 아래와 같이 전자자료와 연속간행물의 사항은 구현형의 요소에 그대로 기록하지만, 내용적 성격을 갖는 사항은 표현형의 요소에서 기록한다.

- 지도자료의 축척 및 좌표사항
  - (저작) 지도의 좌표(1.3.8.3): 경위도, 적경과 적위, 분점, 기점
  - (표현형) 축척(1.4.6.14), 도법(1.4.6.15)
- 약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 (표현형) 약보 형식(1.4.6.11)
- 전자자료의 내용 및 크기사항 → (구현형) 디지털파일 특성(1.1.6.16)의 하위요소인 '파일유형과 '파일크기'에 기록. 파일의 수량은 수량(1.1.6.3)에서 기록하며, 데이터파일이나 프로그램파일의 경우 파일수 다음에 명령문이나 레코드의 수를 기록.
- 마이크로자료의 자원유형별 특성 → 마이크로자료에 수록된 지도자원, 약보, 연속간행물의 자료특성사항을 해당 자원의 기록 규정에 따름.
- 연속간행물의 권호차, 연월차에 관한 사항 → (구현형)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1.1.4)
- 입체자료의 축소 및 확대비율에 관한 사항 → (표현형) 축척 (1.4.6.14)에서 하위요소 '정지화상이나 3차원 형식의 축척(1.4.6.14.1)'에 기록함.

### 3. 형태사항

#### 가. 특정자료종별과 수량

KCR4는 단행본과 같은 인쇄자료를 제외하고 자원유형별로 장을 달리하여 특정자료종별을 제시한 후, 이를 수량의 단위로 기록한다. 다만 인쇄자료의 경우 자료의 구성단위(예: 쪽수) 수량만을 기록하며, 자료의 종별에 따라 자료의 수량 이외에 구성단위의 수량이나 연주시간, 재생시간 등을 기재할 수 있다(1.5.1).

KCR5는 수록매체유형이나 지도자원, 약보, 화상자원, 입체자원의 세부유형에 이어 단위수와 단위어로 수량을 기록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에 따라 목록의 영어식 표현에는 단위수에 이어 수록매체유형 등을 기록하고, 단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원의 재생 시간은 표현형에서 기록한다(1.1.6.3).

그런데 위의 규정만으로는 KCR4와 KCR5가 거의 유사하게 보이지만 자원유형이 중첩되면 KCR4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CR4는 자원유형별로 장을 구성하고 있어 자원유형이 중첩되더라도 하나의 유형만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자료종별도 포괄적인 자원유형에 따라 이미 하나의 종별만 기록한다. 반면에 KCR5는 내용적 측면의 자원인 지도자원, 약보, 화상자원 등이 물리적 측면의 수록매체유형에 수록된 경우, 아래와 같이 내용적 측면

을 원괄호에 기록한다. 아래의 예시에서 KCR4는 원괄호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

- 예) 컴퓨터 디스크 1매 (지도 5매)  
마이크로피시 1매 (악보 1부 (118쪽))

#### 나. 기타 형태사항

KCR4는 형태사항에서 재생특성, 음향, 재생속도, 색채, 제작상의 기법 등 수량과 크기 이외의 형태에 관한 사항을 기타 형태사항(1.5.2)으로 기록하며, 여기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단행본의 삽화류(2.5.2)
- 지도자료의 채색, 종이 이외의 재질, 대지(또는 받침대)의 형태적 특성(3.5.2)
- 고서와 고문서의 삽화류, 판식(版式)(4.5.2)
- 녹음자료의 녹음방식, 재생속도, 음구특성(아날로그 디스크), 트랙 수(테이프), 채널수, 녹음 및 재생특성(6.5.2)
- 화상자료의 매체 특성, 색채, 보관용기(7.5.2)
- 영상자료의 영사특성, 녹화특성, 음향특성, 색채, 영사속도(재생속도)(7.5.2)
- 전자자료(8.5.2)의 음향, 색채, 디스크 면수, 기록밀도, 섹터 관련 사항
- 입체자료(실물)의 재료, 색채, 용기(9.5.2)
- 마이크로자료의 극성(양화, 음화), 삽화, 색채(10.5.2)

그런데 KCR5는 KCR4의 자료유형별 기타 형태사항을 대부분 구현형의 수록매체사항에 기록 하지만, 자료유형별 사항 가운데 아래의 사항은 모두 표현형의 요소로 개체를 달리하여 기록한다.

- 삽화의 다양한 유형(1.4.6.6)
- 영사특성에서 파나비전과 같은 화면비율(1.4.6.10)
- 음향특성에서 음향의 유무(1.4.6.9)
- 색채에서 흑백, 천연색 등(1.4.6.8)

### 4. 주기사항

일반적으로 비구조화 형태의 주기사항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면 구조화 형태에 비해 목록의 탐색이나 링크에 제약이 많다고 생각한다. ISBN과 AACR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KCR4도 주기 사항의 기록이 구조화된 형태가 아니므로 목록의 링크 기능에 제약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KCR5는 주기사항에 기록하던 대부분의 사항을 개체별로 속성을 구분하고, 요소로 변환한 후, 개체

간의 관계 속성을 구조화함으로써 목록의 링크 기능과 탐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개체별로 속성을 구분하여 기록

KCR4는 개체별 구분 없이 단순히 주기사항에 다양한 사항을 기록하였으나, KCR5는 아래와 같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속성을 구분한 후, 대부분 새로운 요소를 설정하고 구조화하여 기록한다.

- 자료의 성격이나 범위에 관한 주기 → (저작) 저작의 내용(1.3.8)
- 자료의 이용 계층이나 지적 수준에 관한 주기 → (저작) 이용대상자(1.3.8.4)
- 학위논문주기 → (저작) 학위논문정보(1.3.8.6)
- 표제에 관한 주기: 번역서의 원표제 → (저작) 저작의 우선표제((1.3.1.1))
- 자료의 예술적 표현 양식에 관한 주기 → (표현형) 표현형의 내용(1.4.6)
- 본문이나 초록의 언어에 관한 주기 → (표현형) 표현형의 언어(1.4.3)
- 참고서목, 색인, 서지주기 → (표현형) 추가적 내용(1.4.6.7) 또는 관련 저작(3.3.1)
- 부록에 관한 주기 → (표현형) 추가적 내용(1.4.6.7) 또는 관련 저작(3.3.1)
- 수상에 관한 주기 → (표현형) 수상(1.4.6.17)
- 자료의 이용이나 접근제한에 관한 주기 → (구현형) 접근제한(1.1.12.3), 이용제한(1.1.12.4)
- 표제에 관한 주기: 연속간행물의 축약표제 → (구현형) 축약표제(1.1.1.9)
- 상이한 표제에 관한 주기 → (구현형) 이형표제(1.1.1.5)
- 자원의 시스템조건에 관한 주기 → (구현형) 장비나 시스템 요건(1.1.6.17)
- 원격 전자자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주기 → (구현형) URL(1.1.12.5)
- 간행빈도에 관한 주기 → (구현형) 간행빈도(1.1.9), 간행빈도 주기(1.1.10.8)
- 소장에 관한 주기 → (개별자료) 개별자료에 관한 주기(1.2.4)

#### 나. 개체 간의 서지적 관계 속성을 구조화

KCR4는 서지적 관계 유형을 주기사항에서 일부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더라도 비구조화 방식이므로 탐색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KCR5는 주기사항에 기록하던 많은 관계 유형을 새로운 요소로 설정한 후, 개체 간의 서지적 관계 속성을 구조화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표시와 서지적 내력에 관한 주기 → 관련 저작(3.3.1), 관련 표현형(3.3.2), 관련 구현형(3.3.3). 특히 KCR4의 연속간행물 서지적 내력에 관한 주기에서 승계, 부분승계, 합병, 흡수, 부분흡수, 분리 등 다양한 서지적 유형을 KCR5는 모두 관계표시어와 함께 관련 저작으로 구조화하여 기록한다.

- 개정, 개작, 번역, 번안 등에 관한 주기 → 관련 저작(3.3.1), 관련 표현형(3.3.2)
- 영인본이나 복제본의 원본에 관한 주기 → 관련 구현형(3.3.3)
- 상이한 형태의 자료에 관한 주기 → 관련 구현형(3.3.3)
- 합침물에 관한 주기 → 관련 개별자료(3.3.4)
- 내용주기 → 관련 구현형(3.3.3), 관련 저작(3.3.1)
- 요약이나 해제, 초록주기 → 내용요약(1.4.6.1), 관련 저작(3.3.1), 관련 표현형(3.3.2)
- 분립에 관한 주기 → 관련 구현형(3.3.3), 관련 저작(3.3.1)

## 5. 기타 세부사항

### 가. 간행방식

KCR4에는 간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반면에 KCR5는 구현형의 간행형식에 따라 단권자원, 다권 단행자원, 연속간행물, 통합자원으로 구분한다(1.0.4). 간행방식에 따라 자원을 범주화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자원별로 세부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나. 본표제에 종속된 관계

KCR4는 활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본표제 앞이나 위에 기재되어 본표제에 종속된 관계의 경우 원괄호에 기록한다. 반면에 KCR5는 원괄호 없이 관계를 포함하여 본표제로 기록한다(1.1.1.1.2). 이렇게 하는 것이 본표제에 종속된 관계를 인위적으로 원괄호에 기록하여 제어하는 것보다 식별성이나 기계적 처리가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 다. 본표제의 축약형과 완전형

KCR4는 연속간행물이나 통합자원의 경우, 축약형과 완전형이 함께 있으면 활자 크기나 기재 순서에 따라 본표제를 기록한다. 반면에 KCR5는 이와 관계없이 완전형을 본표제로 기록한다(1.1.1.1.2).

### 라. 본표제 관련 이형표제

KCR4는 본표제로 선정된 표제 이외의 다른 표제를 '상이한 표제에 관한 주기'로 기록한다. 반면에 KCR5는 구현형에서 식별이나 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표제관련정보나 이형표제로 기록한다(1.1.1.1.2). 특히 저작의 이형표제는 저작의 전거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구현형에서 주기에 기록하던 본표제 관련 표제를 새로운 요소의 이형표제에 기록함으로써 구현형의 전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구현형 차원의 전거제어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 고서와 고문서의 장정, 용지, 판식 등에 관한 정보

KCR4는 고서와 고문서의 장정, 용지, 판식(版式) 등에 관한 정보를 기타 형태사항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사항을 주기로 기록한다. 반면에 KCR5는 수록매체사항 주기(1.1.10.6)로 일원화하여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바. 등록표제

등록표제는 ISSN 국가센터에서 자원에 부여한 표제이다. KCR4는 등록표제를 표준번호 및 입수 조건사항의 요소로 기록한다. 반면에 KCR5는 등록표제를 표제의 하위요소(1.1.1.8)로 기록한다.

사. 딸림자원

딸림자원이 있으면 KCR4는 형태사항 말미에 딸림자원의 유형과 수량을 기록한다. 반면에 KCR5는 수록매체유형, 수량, 크기, 기타 특성을 세트로 반복해서 기록한다(1.1.6.0.2).

## IV. KCR5와 KCR4의 적용 사례 비교

아래에 제시한 원작과 그 번역서, 그리고 K도서관의 소장본을 예시로 KCR4와 KCR5의 서지 기술 차이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 원 작: George Orwell이 1945년에 창작한 소설 *Animal Farm*
- 한국어 번역: 동물농장 / 조지 오웰 지음, 안경환 옮김 (홍익출판사, 2013)  
ISBN 9788970653907
- K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823.9 오67-안

### 1. KCR4에 의한 서지기술

자원이 입수되면 KCR4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원유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한 후, 기술총칙과 해당 자원유형의 규칙을 참조하여 서지기술을 한다(김정현, 2025, 281). 여기서 기술대상은 단행본이므로 기술총칙과 제2장 단행본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KCR4에는 개체별 구분이 없으므로 구현형 수준에서 기술요소의 순서대로 서지기술을 하며, 개체 간의 관계 기록이 필요하면 주가사항에서 비구조화 방식으로 기록한다.

〈표 2〉는 KCR4에 의한 서지기술이며, 설명을 위해 편의상 청구기호와 표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즉, 〈표 2〉의 상단에 기록한 청구기호 '823.9 오67-안'과 기본표목 '오웰, 조지'는 KCR4에

는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지기술을 할 때 당연히 포함하는 부분이므로 KCR5와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다.

〈표 2〉 KCR4에 의한 서지기술 (청구기호와 표목 포함)

823.9
오67-안 오웰, 조지
동물농장 / 조지 오웰 지음 ; 안경환 옮김. -- 서울 :
홍익출판사, 2013
167 p. : 21 cm
원저자: Orwell, George
원표제: Animal farm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부록으로 '조지 오웰 연보' 수록
ISBN 9788970653907 : ₩10000

## 2. KCR5에 의한 서지기술

KCR4와 달리 KCR5의 서지기술은 개체의 속성 기록, 개체 간의 관계 기록, 개체의 접근점 작성이라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김정현, 2025, 281). 여기서 개체의 속성 기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현형 → 개별자료 → 저작 → 표현형 → 저작자(개인, 가계, 단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표 3〉~〈표 8〉은 KCR5에 의한 서지기술이며, KCR4의 〈표 2〉와 달리 구현형, 저작, 표현형, 개별자료, 개인과 같은 개체별로 각각 작성한다. KCR4에는 전거데이터 규정이 없으므로 〈표 2〉와 같이 서지데이터만 기술하지만, KCR5를 적용하면 〈표 3〉과 〈표 4〉의 서지데이터, 〈표 5〉~〈표 8〉의 전거데이터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것을 KORMARC 형식으로 작성하면 KCR4로 작성한 〈표 2〉는 KORMARC 서지레코드, KCR5로 작성한 〈표 3〉과 〈표 4〉는 KORMARC 서지레코드, 〈표 5〉~〈표 8〉은 KORMARC 전거레코드로 기록한다.

### 가. 개체의 속성 기록

구현형을 비롯하여 해당 개체의 속성을 기록하는 단계이다. 위의 예시에서 구현형은 한국어로 번역된 도서이다. 이를 KCR5의 규정에 따라 먼저 구현형의 속성 기록을 하면 〈표 3〉과 같으며, 〈표 4〉는 K도서관에 소장된 개별자료의 속성을 기록한 것이다. 〈표 5〉는 번역서의 원작에 대한 저작의 속성을 기록한 것이며, 이어서 〈표 6〉은 안경환이 한국어로 번역한 표현형의 속성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로 다른 작가가 다시 번역하면 새로운 표현형으로 작성하지만, 저작은 모두 동일하므로 반복해서 작성하지 않는다. 물론 각각의 번역서에

대한 구현형은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표 3〉의 구현형을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으로 다시 발행하면 전자책에 대한 구현형은 다시 작성하지만, 동일한 번역이므로 저작과 표현형은 〈표 5〉와 〈표 6〉 그대로이다. 그다음 〈표 7〉은 저자 'George Orwell', 〈표 8〉은 번역자 '안경환'의 속성 기록이다.

이와 같이 〈표 3〉에 기록한 속성 요소의 대부분은 기존의 목록 작업에서 서지데이터 중 '기술' 부분에 해당하며, '청구기호' 부분은 〈표 4〉, '표목' 부분은 〈표 5〉~〈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5〉와 〈표 6〉은 저작과 표현형 데이터의 예시이며, 일부 데이터 요소는 이전에 서지데이터로 기록하였지만, KCR5는 대부분이 전거데이터로 취급한다. 물론 〈표 7〉과 〈표 8〉에 기록한 대부분의 요소는 이전의 목록 작업에서도 전거레코드에 기록한 것이다.

#### 나. 개체 간의 관계 기록

개체 간의 관계 기록 가운데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3.1)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서로 연결하는 관계를 기록한다. 전거형접근점으로 저작과 표현형 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경우,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여기서 작성한다. 〈표 3〉은 한국어로 표현한 번역서라는 것을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 요소에 전거형접근점 방식으로 기록하였지만, 식별기호를 사용해서 기록할 수도 있다.

이어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3.3)를 기록한다. 여기서 종이책인 〈표 3〉을 대상으로 낭독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것이 있다면, 이들의 서지적 관계를 서로 '관련 구현형'으로 기록한다. 이때 구체적인 관계표시어 '오디오화 (구현형)'과 '오디오화 대상 (구현형)'도 함께 기록한다. 그리고 자원과 개인, 가계, 단체와의 관계(3.2)를 기록한다. 〈표 5〉에서 저작의 저작자를 전거형접근점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역할 표시인 관계표시어 '저자'도 함께 기록한다. 〈표 6〉에서 표현형의 기여자를 전거형접근점으로 기록하였으며, 이때 구체적인 관계표시어 '번역자'도 함께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기록을 통해서 '동물농장'에 관한 기록 데이터인 〈표 3〉~〈표 8〉은 모두 전거형접근점이나 식별기호로 서로 연관되어 있어 관련 자원의 식별이나 탐색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다. 개체의 접근점 작성

개체 간의 관계 기록에서 각 개체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기록하는 경우, 이미 해당 개체의 전거형접근점이 있으면 이를 이용한다. 접근점의 데이터가 없으면 규칙에 따라 각 개체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접근점은 개체의 속성 요소나 다른 개체의 접근점을 조합하여 작성하므로 개체의 속성 요소를 먼저 기록하고, 그것을 사용해 각 개체의 접근점을 작성한다.

〈표 5〉~〈표 8〉에는 저작, 표현형, 저자, 번역자의 전거형접근점이 각각 작성되어 있다. 여기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저자의 전거형접근점과 저작의 우선표제를 결합하여 작성한 것이고, 표현

### 한국목록규칙 제5판과 제4판의 서지기술 비교 분석

형의 전거형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에 표현형 요소를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3〉 KCR5에 의한 구현형 데이터: 번역서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구현형 (속성)	표제	본표제	동물농장
	책임표시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조지 오웰 지음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안경환 옮김
	발행사항	발행지	서울
		발행처	홍익출판사
		발행일	2013
	매체유형		중개장치 없는 매체
	수록매체유형		도서
	수량		251쪽
	크기		21 cm
	간행방식		단권자원
	구현형의 식별기호		ISBN 9788970653907
	입수조건		₩10000
구현형 (관계)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		Orwel, George, 1903-1950. Animal farm. 한국어 (안경환 : 2013)

〈표 4〉 KCR5에 의한 개별자료 데이터: K도서관 소장본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개별자료 (속성)	개별자료의 소장내력		
	개별자료의 입수처		
	개별자료의 식별기호		823.9 오67ㄷ안
구현형 (관계)	개별자료에서 구현형으로의 관계		ISBN 9788970653907

〈표 5〉 KCR5에 의한 저작 데이터: 원작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저작 (속성)	저작의 표제	저작의 우선표제	Animal farm
		저작의 이형표제	동물농장
		저작의 이형표제	動物農場
		저작의 이형표제	アニマルファーム
	저작의 일자		1945
	저작의 식별자		VIAF ID: 184247291 (Work)
저작 (관계)	저작자		저자: Orwel, George, 1903-1950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Orwel, George, 1903-1950. Animal farm

〈표 6〉 KCR5에 의한 표현형 데이터: 한국어 번역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표현형 (속성)	내용유형		텍스트
	표현형의 일자		2013
	표현형의 언어		한국어
	추가적 내용		부록: 조지 오웰 연보
표현형 (관계)	표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		Orwel, George, 1903-1950. Animal farm
	기여자		번역자: 안경환, 1948-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Orwel, George, 1903-1950. Animal farm. 한국어 (안경환 : 2013)	

〈표 7〉 KCR5에 의한 개인 데이터: 저작자(저자)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개인 (속성)	개인명	우선 개인명	Orwel, George
		이형 개인명	Orwell, G.
		이형 개인명	Blair, Eric Arthur
		이형 개인별	오웰, 조지
		이형 개인명	조오지 오웰
	개인과 연관된 일자	출생일자	1903
		사망일자	1950
	활동분야		영미문학
	직업		소설가
	개인의 식별기호		VIAF ID: 95155403 (Personal)
개인의 전거형접근점		Orwel, George, 1903-1950	

〈표 8〉 KCR5에 의한 개인 데이터: 기여자(번역자)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개인 (속성)	개인명	우선 개인명	안경환
		이형 개인명	安京煥
		이형 개인명	Ahn Kyongwhan
개인과 연관된 일자	출생일자	1948	
	사망일자		
소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활동분야			현법학
직업			교수
개인의 식별기호			ISNI 0000 0004 6089 5811
개인의 전거형접근점		안경환, 1948-	

## V. 결 론

이 연구는 KCR5와 KCR4의 서지기술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목록규칙의 구성 기반은 KCR4는 ISBD, KCR5는 FR 개념모형과 RDA이며, 특히 목차 구성에 있어 KCR5는 접근점과 관계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KCR4는 요소의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KCR5는 의미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주요 서지기술에 있어 KCR4의 자원유형, 자료특성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특히 KCR5는 자료특성사항과 주기사항의 내용을 개체별로 속성을 구분하여 기록 한다. 즉, KCR5가 신설한 개체인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를 통해 전거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서지기술에 있어서 KCR4는 서지데이터만 작성하지만, KCR5는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실제 KCR5의 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개체의 속성 기록, 개체의 관계 기록, 개체의 접근점 작성에 있어 KCR4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한편, KCR4를 대체하여 KCR5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호화하기 위한 형식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할 새로운 목록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를 KCR5의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작업도 동시에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https://doi-org.libproxy.jnu.ac.kr/10.16981/kliss.44.4.201312.123>
- 김정현 (2025). 한국목록규칙 제5판 초안의 특성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271-288.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271>
- 이경호, 김정현 (2024). 자료목록법 (제7판). 대구: 태일사.
- 韓國圖書館協會 (2003).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한국도서관협회 (2025). 한국목록규칙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Chaplin, A. H. & Anderson, Dorothy (1970). Report of the 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uing experts, Copenhagen, 1969. *Libri*, 20(1), 105-132.
- IFLA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ünchen: Saur.
- IFLA (2009).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a Conceptual Model: Final

- Report. München: Saur.
- IFLA (2011). Functional Requirements for Subject Authority Data (FRSAD): a Conceptual Model. München: Saur.
- ISBD Review Group (2011). 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Consolidated edition). Berlin: De Gruyter Saur.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7).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ALA.
- Kincy, C. P. & Layne, S. S. (2014). Making the Move to RDA: a Self-study Primer for Catalog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in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https://doi-org.libproxy.jnu.ac.kr/10.16981/kliss.44.4.201312.123>
- Kim, Jeong-Hyen (202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the KCR5 draf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1), 271-288.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271>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5). Korean Cataloguing Rules (5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Gyeong-Ho & Kim, Jeong-Hyen (2024). Introduction to Cataloging (7th ed.). Daegu: Taeil Publishing Com.